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지역경제 '휘청'

〈현대중공업〉

근로자 73% 3858명 실직·협력업체 줄도산 위기 市, 정부에 노후선박 교체·공공선박 조기 발주 등 촉구

전북 지역 경제에 '불황의 공포'가 짙게 깔리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난 1일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면서다. 당장, 군산시는 가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정부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내 조선업이 불황에 허덕이면서 재가동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2일 군산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건조 물량을 미확보한 데 따라 지난 1일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했다.

조선소 설비와 공장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최소 인력 50명만 남았고 실업률은 95%에 달하는 안습한 실정이다. 군산시는 300여명을 비롯, 시내의 협력업체 직원 등 1300여 명이 조선소를 떠났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이같은 내용을 공시한 바 있다.

지역 경제도 얼어붙고 있다.

2010년 문을 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지역 경제의 24%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책임졌던 '알짜배기' 공장으로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1조원 안팎씩 총 4조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

해만 해도 7억8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그동안 360억원의 지방세를 냈다. 이 때만해도 잔업, 특근 등을 마치고 나면 5000명이 넘는 직원들로 조선소 일대 식당가와 먹자골목 주변은 '불야성'을 이룰 정도로 북적거렸다.

하지만 현재는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군산시는 지난해 4월 5250명이던 근로자 중 3858명(73.4%)이 일자리를 잃었고 86곳에 달했던 협력업체도 35곳만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장 가동 중단으로 근로자의 대량 실직과 협력업체 줄도산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군산시는 이대로라면 산업단지 전체 뿐 아니라 자영업 붕괴, 인구 감소 등 경기침체 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30일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군산조선소를 재가동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이 재가동 시점을 밝히지 않은 채 가동을 중단해 성실히



군산조선소 근로자들과 시민들은 지난 2월 결의대회를 열고 조선소 존치를 요구했다. 〈군산시 제공〉

일한 군산조선업 근로자와 시민들은 망연 자실하고 있다"면서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5000여명의 조선업 근로자와 2만여명의 가족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군산시는 "정부는 군산조선소 가동이 국정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의 도화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며 ▲노후

선박 교체 ▲공공선박 조기발주 ▲선박 건조 물량을 군산조선소로 조속히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조선소 정상화는 대통령 공약이고 총리도 조만간 재가동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힌다고 했으니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희망의 메시지'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

대형쇼핑몰 주변 상권 "매출 30% 감소"

목포대 '지역 상권영향' 설문 지역 농·공산품 우선 구매 등 중소상인 상생 방안 마련 시급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 뒤 인근 상권에서 영업을 하던 중소상인들이 30% 안팎의 매출 감소를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대 사회적 경제연구소 최정훈 박사는 30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대규모 점포 입점 관련 지역 상권영향 연구 용역 보고회'에서 이같은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LF 스퀘어 광양점 주변 중소상인은 35.0%, 무안 남악 롯데 아울렛 주변 상인은 27.4%의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LF 스퀘어와 관련된 상인들의 경우 광양읍권 16.7%, 순천 연향권역 31.0%, 순천 원도심권 34.7%, 광양시청권

역 49.0% 등 매출 감소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남악 롯데아울렛 주변 상인들에 대한 응답에서는 무안 남악지구 10.3%, 목포 하당권역 25.0%, 목포 원도심권 47.0% 등 평균 매출 감소 비율이 나타났다.

객관적인 매출액 비교가 아닌 전체 안팎의 매출 감소를 체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체감도 평가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 박사는 LF 스퀘어 매출액을 1650억원으로, 롯데아울렛은 433억원 가량의 연간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상생기금 마련, 서비스·마케팅 교육, 지역 주민 우선 채용, 지역 농·공산품 우선 구매 등이 상생 방안으로 제시됐고 참고·작업장 공동 활용, 빈 점포 활용,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등 상생 방안도 거론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1단계 부지 준공

우량기업 유치 총력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1단계 부지가 준공됐다.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1단계 부지는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대 2.42㎢(73만평) 규모에 오는 2020년까지 5083억원을 들여 조성될 예정이다.

우선 개발된 1단계 부지는 지난 2015년 10월 착공해 준공된 것으로, 0.49㎢(15만평) 규모다.

1단계 부지 분양 공고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됐고 분양가는 올해 말까지 14%를 할인한 3.3㎡당 85만원에 공급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장

호의 경우 지난 5월 분양계약을 거쳐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연구기반시설인 융복합소재실증화지원센터는 오는 11월 준공한다고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청은 산단 활성화를 위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5개사와 협연에 나서고 있다. 경제청은 11개사가 2019년까지 25만㎡ 규모로 투자할 예정이며 2020년 이후에도 5개사가 18만㎡ 규모의 투자의향을 내비쳤다고 설명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세풍산단 1단계 부지 조성이 마무리된 만큼 우량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전주비빔밥 긴장해!" 부안군, 뽕비빔밥·뽕정식 메뉴 개발

평가단 초청 평가회 열어 이색 건강 먹거리로 육성

부안군이 뽕잎을 활용한 뽕비빔밥과 뽕정식 개발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끈다.

부안군은 최근 변산면 해변촌탈이리굴에서 '부안뽕비빔밥, 뽕정식' 최종 평가회를 갖고 개발업체들이 내놓은 뽕잎을 활용한 정식과 비빔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평가회에는 부안특산희망업체 6개소 대표와 평가단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평가회에 참여한 부안지역 음식점 업체들은 뽕밥을 비롯, 뽕잎을 활용한 다양한 반찬, 후식 등을 내놓으며 평가단의 입맛을 사로잡는데 공을 들였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뽕비빔밥과 부안뽕정식이 관광객들에게 지역을 대표하는 이색 건강먹거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펼쳐겠다"면서 "지역 양장농가들의 뽕잎을 채취,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악·부안=김민준기자 jun@



부안군이 최근 뽕잎을 활용한 뽕비빔밥과 뽕 정식을 선보이고 지역 대표 먹거리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열린 뽕비빔밥, 뽕 정식 평가회. 〈부안군 제공〉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판선 · 전원주택지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896㎡ 전망좋은 2억2백
- 금매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3548㎡ 은행 1억3천 매도 3억7천
-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1877㎡ 요양주택·사찰도 적합 6천만원
- 남평읍 우산리 대지 774㎡ 광주에서 15분거리 6500만원
-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땅 32454㎡ 판선과 농장적합 5억

주택 · 원룸 · 아파트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2동 2억3천
- 월산동 2층 상가 주택 대지 133㎡ 건평 143㎡ 1억4천
- 월산동 고급주택 농성초교부근 대지 352㎡ 주택168㎡ 5억2천
- 월산동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126㎡ 2층주택 1억6백
- 월산동 원룸 중 3층 23㎡ 독립생활적합 2100만원

투자 · 매도 · 교환

- 전원주택 개발할곳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임야 14479㎡ 2억천
- 담양군 봉산면 대지 10692㎡ 아파트·참고 적합 매도 12억5천
- 요양병원적합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도로여건 좋음 7억
- 독립섬 56233㎡ 신안군 임태면 새천년대교 인근 3억5천
- 월산동 보라리파트부근 1층 65㎡ 식당·사무실용 6천만원
- 충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상가건물

- 월산동 대지 160㎡ 건물 419㎡ 4층임 전세3천 월300천 5억7천
- 월산4동 새마을금고부근 2층식당건물 대지 226㎡ 매도 4억2천
- 월산동 농성초교너편 6세대 대지 206㎡ 건평 328㎡ 3억6천

감정가 이하

- 남구 송하동 산 22556㎡ 감정 2억5천선 은행 3천 매도 1억천
- 담보용 고층군 상업지 254㎡ 공사가 3억5200 은행 2억4천 매도 2천
- 유흥 좋은 모텔 대지 422㎡ 건평 984㎡ 감정12억선 교환가능 8억
- 해남군 신안면 식품공장 등 적합 17344㎡ 감정 24억선 매도 12억
-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 4137㎡ 감정 2억5200 은행 1억7600 매도 800
- 무안군 삼향읍 용포리 1969㎡ 투지에 좋음 7200만원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은
 - 신안다리 바로 옆, 내부깨끗
 - 시세-1억 2천만원
 - 매매-9천 9백만원, 즉시 입주가능
 - 주인직매
- H. 010-3605-5000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은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6000만원

문의 010-6496-2525

